

4. 크루즈선 운항일정계획 최적화 모형에 관한 연구

해운경영학과 권해규
지도교수 조성철

아시아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함께 오리엔트문화를 대표하는 차별화된 역사·문화적 관광매력을 보유하고 있어 증가하는 세계 크루즈 관광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크루즈 관광상품개발은 일부 동남아시아를 제외하면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크루즈선은 현대의 금강호와 봉래호, 풍악호,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Star Cruise의 SuperStar Taurus호가 전부일 만큼 크루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발전정도는 미진한 형편이다. NCL(Norwegian Cruise Line)사를 인수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가 된 말레이시아의 스타 크루즈사와, 아시아에서 최초로 100,000GRT(Gross Registered Tonnage : 총등록 톤수)급 선박인 Princess사의 113,000GRT 크루즈 선박을 건조하는 일본의 조선산업 등이 그 좋은 비교대상이다. ICCL(International Council of Cruise Line)의 집계처럼 매년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하는 크루즈산업이지만 고가의 크루즈선박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대관리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크루즈산업의 규모와 투자액은 과거의 직관이나 관행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존하기에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액수이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은 불충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상선에 대한 과학적의사결정 연구는 있지만, 전무한 크루즈산업에 대한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크루즈산업의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현실의 크루즈운항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모형의 제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크루즈 운항에 관한 정확한 학술적 논문의 부재로 인해 인터넷과 Convention자료 등 시사성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현대크루즈 산업의 현황과 특징, 전망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크루즈선의 후보운항 일정을 제안하는 방법의 제시와 비교적 중기 계획으로서의 최적운항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형은 크루즈선사의 최적 크루즈운항에 관한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복잡해질 수 있는 크루즈선의 운항모형을 운항일정계획 네트워크로 나타냄으로써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동시에 적절치 못한 의사결정자의 판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고가인 크루즈선과 고부가가치산업인 크루즈산업에 있어 이러한 가능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 손해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의 요약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크루즈선 운항에 관한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연구는 최초로 크루즈선 배치 및 경로선택문제를 위해서 최초의 최적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크루즈선사의 모든 운항일정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표현 분석할 수 있는 후보운항일정계

획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개발된 운항일정계획 네트워크 모형과 선형계획모형에서 최적운항일정의 도출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모형의 사후분석 측면인 민감도 분석을 위해 선형계획모형을 도입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의사결정자에게 더욱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개발된 모형은 고가의 크루즈선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크루즈선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크루즈선의 경제성분석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벤처기업의 공개와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

해운경영학과 우 재 준
지도교수 이 기 환

최근 벤처기업붐과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증가로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2000년 9월말 현재 우리 나라 코스닥시장을 살펴보면 등록법인수가 589(벤처기업 224개 포함) 개로서, 이는 코스닥시장이 처음으로 출범했던 1996년의 331개 비해 1.8배에 지나지 않지만, 시가총액면에서는 8배에 해당하는 47조원을 기록해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지난 2월에는 일일 거래대금에서 거래소시장을 앞서면서 명실상부한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양대시장으로 우뚝 섰다. 이러한 코스닥시장의 급성장은 기술담보나 신용대출 등의 금융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실로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성장은 성공한 벤처기업을 양성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붐을 일으켜 자금회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자금이 고수익을 쫓아 벤처캐피탈투자(신기술금융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엔젤자본형태로 조성되어 벤처기업에 유입되었다. 조달된 자금은 기업성장과 연구개발, 사업체 확장, 재무구조 건실화, 자본이익배당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었고, 고용창출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국부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코스닥시장의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정책이 일조한 성과이기도 하겠지만, 자본시장 자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바, 코스닥등록기업의 자금지원창구라 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벤처캐피탈이라고 함은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 기업에 대해 자금과 경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투자기업을 공개한 다음, 투자지분매각에 따른 자본이익(capital gain)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이나 금융기관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술력은 충분하나, 자본력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벤처, 중소기업에 경영지원을 함으로써 기업공개와 함께 자금을 회수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정보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처캐피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들어 활발